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수) 09:00 (2026. 7. 2.(목) 조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제조업 무재해 릴레이 캠페인 출범식

- 청주지청 관내 대표 건설업·제조업 40개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적극 참여 추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7월 2일(목) 추락, 끼임, 화재, 폭발, 질식의 5대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릴레이 캠페인 출범식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건설업 SK에코플랜트와 제조업 SK하이닉스로 시작하여 1주간 순차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후 다음 사업장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2026년 11월까지 추진한다.

❖ **참여 사업장**

- (건설업) SK에코플랜트(주), 효성중공업(주), GS건설, 한화오션(주), 금호건설(주), ㈜대우건설, DL건설, ㈜두진건설, 롯데건설(주), ㈜원건설, 코오롱글로벌(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이앤씨
- (제조업)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엘지에너지솔루션, 씨제이제일제당(주), ㈜유한양행, 엘에스일렉트릭(주), ㈜LX하우시스, 스템코(주), ㈜면사랑, ㈜서흥, ㈜심텍, ㈜에코프로비엠, ㈜엘지생활건강, ㈜정식품, ㈜팔도, 하이트진로(주), 한화솔루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에버다임, GC녹십자

청주지청은 오늘 무재해 릴레이 캠페인을 계기로 관내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였다.

연창석 지청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청주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고 93%인 59명이 추락재해 등 후진국형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영남 (043-279-5100)
		담당자	감독관	고병진 (043-279-5106)